



◇ 미륵신앙의 모태지 금산사미륵전의 기둥.



◇ 금명저수지.

사찰생태연구소·현대불교신문이 함께 하는
108사찰 생래기행
 (21) 미륵산 금산사

는 숲, 오소리, 너구리, 노루, 고라니, 멧토끼, 고슴도치, 대륙족제비 등이 서식하고 있다.
 다시 부도전 갈림길로 내려와 청룡사를 향해 가다보면 멀리 모악산 능선이 달리고 있다. 능선에 줄지어 늘어선 참나무숲의 모습이 마치 쓰리 울타리 같다. 그 아래 사면은 신갈나무, 졸참나무, 굴참나무, 상수리 등 온통 참나무숲으로 뒤덮여 있다.

미륵의 자비 숲 곳곳에 스며

김제 모악산은 미륵불교의 근본도량인 금산사가 앉은 땅자리이다. 금산사는 진표율사가 변산부사의암(不思議庵)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망신참(亡身懺)의 오랜 고행 끝에 미륵보살과 지장보살로부터 간자와 계분을 전해 받고 중창한 미륵신앙의 자궁 같은 절이다.
 호남고속도로를 타고 익산-삼례를 지나면 왼

미륵전은 진표 율사 중창 당시의 건물은 아니지만, 당시 율사가 숲을 사용해 연못에 살던 아홉 마리 용을 항복 받고 미륵전을 처음 지었다는 내용은 적어 흥미롭다.
 미륵전 기둥들은 다듬지 않은 느티나무이다. 그 자연성은 금강역사의 팔폭을 연상케 한다. 절집의 오랜 건축물 일수록 자연성이 많이 살아있다. 건

6백 미터를 기준으로 위쪽으로는 신갈나무가 위세를 떨치고, 그 아래로는 굴참과 졸참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모악산 지질은 쥐라기2억 1천만년~1억 4천만년 전해 형성된 편마상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겉에서 보기에 토심 깊을 육산 같아 보이지만, 한 겹 표토를 걷어내면 암맥이 금방 드러난다. 특히 경사지역은 표심이 얕아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쓰러진 나무들이 여기저기 눈에 띈다.
 그리고 금산(金山), 금구(金溝), 금천(金川), 김제(金堤) 등등 모악산 주변의 지명에 쇠 '금' 자가 많이 들어간 것은 모악산의 지질상에 나타나는 합금석영맥(合金石英脈) 때문이다. 과거에 이 지역에서 사금(砂金)이 많이 생산되었다. 따라서 <금산사지>(金峯臺 碑文)에 나오는 '얼피→르피→르산→금산'이 되었다는 지명유래설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요즘 청룡사는 입도(林道) 개설공사로 어수선하다. 경사지를 절개하여 물리적으로 낸 입도는 그만큼 산사태와 침식의 위험이 높다. 현재 입도가 대웅전 위쪽 직선거리 5~10미터 위치에서 지나가고 있어서 집중폭우 때 산사태가 일어나면 토사가 대웅전 지붕 위를 덮칠 위험이 상당히 높다.

당우 주변 무속신앙에 화재위험 상주 미륵전 기둥 건축·자연 하나된 수작

쪽으로는 모악산(母岳山)이 시계(視界)에서 서서히 들어오기 시작한다. 모악산은 어머니 품처럼 넉넉하고 자비롭다. 만경 동진 두 물줄기가 모두 모악에서 발원하고, 그 물이 '징계평경외매릿물'을 다 적셔준다. 역사 깊은 호남의 도작문화(稻作文化)도 기실은 모악이 그 자궁이다.
 길가에 문짝 없는 당우 안에 무속인들이 켜 둔 수십 개의 촛불이 지켜보는 사람도 없이 저대로 타고 있다. 당우가 산자락에 붙어있어서 만약 화재가 난다면 대형 산불로 번질 위험이 높다. 남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금산사 사부대중이 모두 '오며가며 불조심' 해야 할 것이다.
 견문을 지나면 도로 주변으로 김제사에서 야생화학습장, 꽃길, 서구식 잔디공원 등을 조성해 놓았다. 왕벚나무, 쪽동백, 잔나무, 왕버들, 느티나무, 소나무 등 우리 나무와 함께 메타세쿼이아, 히말라야삼나무, 양버즘나무, 삼나무 등 외래종도 많이 식재되어 있다.
 보제루를 지나면 마당 한 가운데 반송처럼 옆으로 퍼진 와송(瓦松)이 정일점으로 자리하고 있다. 그러나 와송은 이름과 달리 잣나무이다.
 나라 안팎이 어지럽던 한말 1902년, 금광(金鑛)에 눈 먼 채굴꾼들이 금산사 경내까지 들어와 채광(採鑛)하려고 난리를 피웠다. 이에 주지 각민(覺民) 대사가 그들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그만 불량한꾼들의 행패로 이 잣나무 아래에서 57세의 나이로 졸지에 입적하게 되었다. 사람의 수행환경을 지키기 위한 최초의 순교였던 것이다.

축의 자연성은 나무를 나무로 대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나, 요즘 지은 절집에는 휘어진 기둥이나 굽은 서까래를 볼 수가 없다. 나무를 나무로 보지 않고 단순한 목재(木材)로만 보기 때문이다. 크게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다.
 미륵전 옆 송대(松臺)는 경내에서 조경미가 가장 두드러진 곳이다. 늙은 소나무와 회나무는 이미 오래 전에 사라지고, 앞들을 다 썰고 겨울 활엽수들이 '비움의 미학'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송계에 이르기까지 천천히 위치를 바꿔가며 바라보



울창한 숲속 다양한 조류, 포유류 서식 최근 무리한 입도 공사로 산사태 우려

는 눈 맛은 아무나 즐기는 것이 아니다. 대장전 뒤로는 왕대숲이 그윽하고, 왕대숲속에 직박구리 소리 요란하다. 직박구리는 금산사 주변의 조류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텃새이다. 겨울철 경내외에서 볼 수 있는 조류로는 박새류를 비롯하여 황조롱이, 큰오색딱다구리, 불까마귀, 어치, 산솔새, 붉은머리오목눈이 등이 있다.
 심원암 가는 길은 외출기이다. 심원암 뒤로 정상으로 이어진 등산로가 나 있다. 그 길은 모악산 멧돼지들이 다니는 나들목이다. 심원암 스님은 요즘 며칠 사이에도 몇 마리의 멧돼지 가족들이 지나가는 것을 목격했다고 한다. 모악산의 포유동물로



입도의 시멘트 배수로는 지표수가 지하로 스며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아 물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때문에 청룡사 주변의 지하수 체계에 심각한 변화를 줄 수도 있다. 또, 집중호우로 흘러내린 토사가 배수로를 막게 되면 빗물이 입도를 넘어 청룡사 경내로 쏟아져 들어올 위험도 없지 않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것은 입도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청룡사 주변의 30~50년생 나무들을 너무 많이 훼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http://cafe.daum.net/templeeco
 글·사진=김재일(사찰생태연구소장)

등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찬덕 연등은 최고 품질과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 연꽃잎 제조특허 (특허 제122168호) / 팔각등 실용신안 (등록 제098634호)와 의장등록 다수 보유업체 ◆

“연등용 전선 케이블” 찬덕 연등이 시공하면 기초부터 다릅니다.

설계에서.. ← 시공까지..

지금 전국에선 “연등전선케이블”의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시공하여 드립니다.

* 시공된 연등용 전선 케이블 *

팔모접등

보관상대

팔모조립등

공단등 (비단등 실크등)

종 등

만월등

* 만월등, 종등에 사찰이름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소모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찬덕 연등제작사

경기도 하남시 춘궁동 180-1

전화 : 031) 792-6288, 794-4055 / FAX 031) 794-6288

찬덕홈페이지 : www.chanduk.com e-mail : chanduk21@hanmail.net